

잃어버린 지파들

The Lost Tribes

(상속권을 주장한다 - 1 편)

야쉬와의 교회가 이스라엘인가? "기독교인" 교리 안으로 많은 오류들이 기어들어 온 이후로, 교회 주변에 혼란에 징후가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좀더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비밀 승천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믿기를, 박해가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될 것이고,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림이 회복되어서 야의 계획에 일부분을 나타낼 것이고, 순서에 따라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죄를 완전히 승리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여러 해 동안에, 극단적으로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여 놓았으므로, 그분의 참된 자녀들을 위한 메시야의 목적이, 영적으로 참되고 중요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 지상 이스라엘에 있는 전쟁이 불행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선택된 어떤 국가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소동 속으로 던져지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암시하지 않는다.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4:6)

우리가 이것을 세 부분들로 상세하게 진행할 수 있다. - 이는 위에서 설명한 잘못된 각 교리들을 검토하고자 하고, 또 어쩌면 이 토론하는 과정이 진행될 때, 야께서 지상을 위하여 계획하신 모든 진리를 그대가 깨닫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분의 백성들이, 어떤 다른 백성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절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단어가 나타났다, "너 유대 땅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임이라."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신다는 말인가? 그것이 확실히 십자가 위에 있는 그분을 비난하여 지적하는 것 같다, (마태복음 27:37, 마가복음 15:26, 누가복음 23:38, 요한 복음 19:19) 그러나 그분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것을 상기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 복음 18:36)

"나의 왕국은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고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셨다. 야의 왕국은 문자 그대로 세속적인 이스라엘의 상태에서 건설될 수 없고 또 언제나 그러한 상태에서 창설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로마서 3:1) 다음 인용문에서 진술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성경말씀"과 선지자들을 (로마서 3:2) 소유하였고, 첫 번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외에는 유대교 신앙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그 안에 "접붙여진" 존재라고 해도 아무 이익이 없다. (로마서 11:17)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로마서 2:10,11)

지금, 계시자 요한이 예언한 것은, 환란 때에, 그러한 오류로 인도함 받고 믿는 교회가 어떻게 제거될 것인가에 대하여 그대가 깨닫기를 원한 것이다. 계시에서 참으로 "교회"에 대한 용어를 야의 백성들로 설명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설명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은 환란 때에 해를 입지 않을 것이지만, 일찍이 그분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마지막 순간에 재빨리 그분을 받아들일 것이다."고 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계시록 12장에서 교회가 훨씬 뒤에 제거될 것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발견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입었고, 달은 그녀의 발 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열두 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계시록 12:1) 누가 이 여인인가? 그녀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인가? 요한이 기록한 출처에서 그의 논리를 숙고하자:

에덴에서 사탄이 그들을 유혹한 후에, 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창세기 3:15) 지금, 다시 계시록 12장 17절로 돌아가서 읽으면,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브가 오직 유대인들의 어미였던가? 창세기 3:20절이 기록하기를,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부르니, 이는 그녀가 모든 산 자의 어미였음이라." 이 예언들을 기록한 요한이 역시 고려한 것은, 바로 야쉬와의 (기독교인들) 교회를 여자 또는 "선택된 여인"으로 언급한 것이다. (요한 2서 1:1)

근래에 어떤 목사가 말하기를, "언약들을 깨뜨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다고 어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아버지께서 그의 선택된 백성들을 잘라내 버렸다고 어떻게 그들이 아주 어리석게 말할 수 있는가? 이 유대교를 반대하기에 만연하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고 한다. 이것은 알기 쉽게 바꾸어 말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의도를 포착하였다. 그것에 대하여 내가 즉시 말하는 것은, 그 진술이

처음부터 틀린 생각이다: "언약들을 깨뜨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확실히 그 말이 옳다, 그분께서는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야게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출애굽기 19:5) 보라, 만일 너희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 그때 너희가 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약속한 것을 반대하여 깨뜨릴 것을 야게서 경고하셨고, 또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야게서 선언하시기를, "야게서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나의 낮의 언약과 나의 밤의 언약을 깰 수 있다면, 또 그들의 계절에 낮과 밤이 없게 된다면; 그때에는 또한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깨어질 수 있어서 그에게 그의 보좌를 다스릴 한 아들도 없을 것이며, 나의 사역자들인 레위 제사장들과 세운 언약도 깨어질 수 있으리라."(에레미야 33:20,21)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 언약을 깨뜨렸는가? "야게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그들이 가서 그들 가운데 거할 그 땅의 이방 신들을 좇아 음란한 것을 하려 가리니,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었던 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니라."(신명기 31:16)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야게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창세기 6장에서 그분이 결심하신 것처럼 세상을 멸하셨는가? No, 차라리, 그분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깨뜨렸다 (참으로 그들이 먼저 그 언약을 깨뜨렸다), "내가 내 막대기로, 쾌적하게 둘로 꺾었으니, 이는 내가 온 백성과 더불어 세웠던 내 언약을 폐기하려 함이라."(히브리 성경, 스카라 12:10)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쓴 저자가 선언하기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야웨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야게서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히브리서 8:8)

그러면 무엇이 그 새 언약인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게니라."(히브리서 12:22,24)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야쉬와께서 새 언약의 창시자시고, (마태복음 26:28) 그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셨다. 그러나 지금, (다니엘 9:27절을 - 옮겨 읽으면) 유대인들의 조직은 사라졌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야쉬와 외에) 다른 이에겐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사도행전 4:12)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고린도전서 12:13)

지금 여기에 교활한 속임수가 어디에 있을 수 있으며, 또 비밀로 승천하기 전에 고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 믿는 것이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 그들이 대답해야 할 것이다. 계시록 12:17절과 14:12절에서, 그 "성도들"이 야의 계명들을 지키고 또 그분의 아들의 증거를 가진 것 둘 다 선언하는 자들이다. 고 하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선언하기를, "이것이 분명하다 - 기독교인들이 사라진 뒤에, 유대인들이 (특히 안식일 - 계명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과 복음을 결코 들어보지 않은 이방인들이, '야곱의 환난' 때를 통과하고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지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순교 당할 것이다."고 한다.

이 비밀 승천은 (병원균, 전염병 그리고 촉진하는 독소)가 되고, 이것에 대하여는 이미 나의 기록들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내가 이것을 지적하여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지금 이것에 대하여 충분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신약 성경"에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계명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수하신 것은, 이 계명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2:27)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할 것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가 선언하기를: "야게 연합하는 타국인들의 아들들도 그를 섬기며 야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들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모든 자들과 나의 언약을 지키는 모든 자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 줄 것이며 그들의 번제들과 희생제들도 나의 제단 위에 받아들여리니,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임이라."(이사야 56:6,7) 여기에서 요점은 계시록 7장에서 "인장" 받은 자들을 간단하게 보여준 것이고, 또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계시록 14:4) 그들이 신약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전체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충실한 기독교인들일 것이고, 또 그것을 간곡히 권고하는 자들일 것이다 -우리가 /그들이며 참된 야의 교회다.

내가 이미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보여준 것은, 야쉬와의 종교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구원에 중요성이) 차별이 없는 것이다, 누군가 말하기를, "Yes, 교회와 유대교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것 둘 다 구속의 경륜에 일부분이다."고 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들을 거것으로 만든다. 물론,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차이가 있다, 기독교는 죄들을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유대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때문에 야게서 당면한 문제가 있는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죽은 자이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요한일서 5:12), 그리고 야게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4)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니, 즉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니라."(로마서 10:1)

그대가 항변여 말하기를,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을 거절한 후에, 비록 많은 자들이 길 도중에서 잃어진 바 될지라도, 그분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상태에서 계획하신 구원이 있다." 고 한다. 그것이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되다, 그러나 언제든지 조직에게 되돌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의혹이 된다. 물론 그들이 만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유대인 기질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지상에서 바로 어떤 다른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교에 대한 의혹을 그리스도 그 분 자신이 응답하신다. 메시아께서 슬픔의 어조로 한탄하시면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때가 오기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3:34,35)

메시아가 끊어진 후, 희생제가 금지되는 원인에 대하여 다니엘이 무엇을 말하였는가?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다니엘 9:26) 여기에서 성급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자 - 어떤 자가 우리에게 그 구절을 읽어 준 것과 같이, 문자 그대로의 집, 세속적인 유대 국가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남겨진다고 한 것은, 유대교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까지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들"이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며, 또 우리가 야곱의 12 지파들의 상속자들로 받아들여졌다. 그것이 참으로 영원한 언약이고, 또 아름다운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로 비유담에서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푸는데 - 첫 번째로 초청한 자들이 오지 않았고, 또 대로나 셋길에 나가서 ("악하거나 선하거나" -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대로 다 불러오니, 그 혼인 잔치가 손님들로 가득찼다. (마태복음 22:2-14)

참된 기독교인들이 계명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들이 우리들이고, 또 그들이 끝까지 충실할 것이며, 필연적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죽임을 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짐승이 선언하였지만,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계시록 13:15]),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 참된 믿음이 순종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야고보서 2:9-18) 야고보서 2:11절에서, 기록된 율법의 항목들 2개가 직전 직후에서, 대조를 이루는 것에 대하여 저자가 유쾌하게, 기록하기를,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하였다. (출애굽기 20:13,14) 그 결과 우리가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어느 편에 있는 "성경말씀의 고귀한 율법"야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도록 인도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야고보서 2:8)

바울이 교회에게 대담한 기록으로 선언하기를,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채로 너희의 눈 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갈라디아서 3:1)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없지만, 여전히 순종이 참된 믿음의 결과를 낳는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라고 사도 바울이 질문한 것이, 근대 기독교인 누구든지에게 더할 나위 없는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은, 근대 기독교인이 믿기를, 참된 법이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주어졌으므로, 믿음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는다. 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를 (로마서 7:7) 구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이 역시 "육신대로 행하는" 세속적인 유대인들의 본성과, 이방인들의 본성 사이를 구별하였다. (갈라디아서 2:15, 빌립보서 3:4,5, 고린도전서 10:18) 로마서에서, 그가 참된 유대인에 대하여 말하기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28,29) 역시 야쉬와 그분자신이 보다 작은 아시아 교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 말씀들을 하셨다: "내가 너의 행위와 환란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네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계시록 2:9절 그리고 비슷한 구절 계시록 3:9절) 이 성경 구절을 두 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 그리고 이것 둘 다 "그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압도적인 토론이 된다. 어느 쪽이든 1)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 의미는 그 교회 멤버들이 그들 자신들을 고려하여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또 2) 교회 안에서 어떤 자연적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는 이유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유대인으로 고려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교회 안에서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이 두 구절이 진리를 해석한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하여 완전하고 분명하게 설명한 것이다.

이것을 이미 첫 두 부분들에서 다루었다: 지상에서 영적인 유대인들의 (참된 교회)가 환란을 (계시록 12:12) 통과하면서 아주 마지막까지 갈 것이고, (계시록 20:4 -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신명기에서 "환란"의 단어를 처음으로 번역하여 언급한 것을 읽으면 "네가 환란에 처하고 이 모든 일들이 훗날 내게 임할 때, 네가 만일 야웨 너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 (야웨 너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니) 야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야께서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네 조상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리라."(신명기 4:30,31) 환란이 시작될 때, 이미 인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야께서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은, 바로 마지막 재앙들이 내릴 때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9:20,21, 계시록 16:9,11)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한 것에 대한 최후의 결과는 무엇인가? 죄를 이기는 것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 그 교회가 '비밀 승천'에 기록된 것을 분명한 것으로 기대하지만, 계시록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가망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 이것으로 말하면, 그들이 지금부터 언제든지 그러한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언약한 것을 우리가 안다. 그분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기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 아들이 그 "첫 열매"를 보좌 앞에 제시할 것이다. "어떻게"? 라고 그대가 질문한다,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가?" 민수기 13장에서 10명의 가짜 증언을 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그 땅에 거인들이 있다. 그들이 [우리의 죄된 성벽이]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시야에서 메뚜기들과 같다!" 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참된 복음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발 아래 놓습니다." 그리스도 야쉬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선언하기를 "그대가 나중에 깨끗하게 될 것이 아니고, 지금 그대가 깨끗해졌다,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고 그분이 말씀하셨는가? Yes.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Yes.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 질문에 no. 라고 말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들이 말한다. 그러나 오늘, 내가 그대에게 도전한다: 만일 그대가 결코 그 언약을 그대의 본분으로 완전하게 지키지 않았으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노력해 보라,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그대에게 축복이 되지 않을 것인지 보라: 영과 진리 안에서 그대가 그분의 법을 지킬 때,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영을 부어 주시지 않는지 보라. 오늘 이 결심을 하면, 많은 머리를 가진 짐승 위에 앉은 여자가, 몹시 취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것이다. (계시록 17:3-6) 그대의 가짜 선생들과 장님들의 인도를 따르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면, Yes, 그것이 그대를 의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그대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할 것이고, 또 자연적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대를 인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대의 이름이 승리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대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야께서 법을 만드신 것이 잘못된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또 지금은 그것의 필요 조건이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도에서 벗어났거나, 인간적인 존재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발전된 것이다." "율법이 죽음으로 인도한다." 고 그들이 말한다. 바울이 역시 그것을 말한다 (고린도 전서 15:56), 그리고 그가 또한 말하기를, "그러므로 율법도 참으로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로마서 7:12) Yes. 그러나 그 율법이 죽음으로 인도한다 -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인 자신이 참으로 죽으면 **정확하게** 실행된다! 오직 교만함과 두려워함과 불신은 자신의 죽음을 저항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계시록 21:8절에서 설명한 대로 그들에게 멸망이 닥치게 될 것이다. Yes 율법이 죽음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그것이 진행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것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24)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죽고 난 후에, 바울이 선언한 것을 우리가 선언하게 된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14)

그리스도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율법을 따를 수 없다, 그 율법이 죽음이다."고 한다.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기를 "그대가 율법이 마치 나쁜 것처럼 말한다." 야쉬와께서 율법에 대하여 한층 더 분명하게 표현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마태복음 16:25) 시도해 보라 - 그대가 확실하게 붙잡은 것으로 죄를 승리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지 보라, 그대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대의 마음 속에 그 법들이 기록될 것이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므로,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긴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고, 또 어린 양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노래를 부르게 되며, (계시록 15:3) 그들이 야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상속되는 -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결론 짓는다. 이것에 대하여 망설임이나 어떤 의혹조차도 남기지 않도록 내가 시도하고 아주 분명하게 결말짓고자 한다. 성경말씀 두 구절로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요약한다. 참으로 목마른 자가 이 구절들을 읽을 것이고, 또 심사 숙고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곧, 그들이 이전 구절들을 읽을 것이고, 또 그 구절의 다음 구절을 이어서 읽으면, 내가 어느 것이든지 문맥에서 빼내어 선택하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자가 그렇게 하도록 내가 초청한다. 그대가 목마른가? 그대가 배부를 것이다.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라.**" (빌립보서

3:3) 바울이 그 외에 계속 말하기를, "내가 또한 나의 육신 안에서 세속적인 유대인의 표를 지니고 있으므로,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어떤 자들이 생각한다. 그러나, 참된 할례를 받은 자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야베허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이며, 받아들여진 자들이고, 그분의 아들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다."

두 번째, 이것을 한층 더 분명하게 설명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리운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리운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 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느니라." (에베소서 2:11-14)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육체 안에서 이방인들이었던 자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그분의 나라에 속하지 않았던 자들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이다.** 이것과 다르게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22:29) 야곱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항상 야의 이름을 가진 백성들이었다. 이방인들이 접붙여진 바 되었고, 또 메시아를 거절한 특수한 유대인들은 "끊어졌고" 또 그들의 조직도 파괴되었다. (로마서 11:16-27) 참된 이스라엘은, 시들지 않았고 죽지도 않았으며, 또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26절) 우리가 또한, 거룩하게 되고, "첫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우리의 유산이고, 또한 영원한 생명이다.

이 기록 "**상속권을 주장한다**"의 표제는 4편으로 연속 출판하였고, 이것이 첫 번째가 된다, 그리고 그대가 계속 이 기록들을 읽도록 내가 초청하는 이유는, 더욱 더 많고 많은 것들을 말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David
데이비드